

안보정국 '유탄' 지역 국비예산 위기

대치국회, 與 예산안 단독처리엔 상임위 확보 예산 물거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잇따른 대형 사건과 악재로 내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국회 상임위에서

어렵게 반영한 광주·전남지역 주요 현안 예산이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4대강 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

립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 대형 쟁점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자칫 3년 연속 예산안 여당 단독 처리 사태가

빛어질 경우,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9일 현재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 중 운영위·정무위·외통위·행안위·복지위·문방위를 제외한 10개 상임위는 아직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거나 회의 날짜도 잡지 못했다.

여당은 내달 2일부터 5일까지 예정된 특위 소위 심사를 벌인 후 6일 본회의에서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상임위의 예산 심의 상태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관적 견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문방위는 광주·전남지역의 주요 현안 예산 중 F1 대회 지원액 368억원과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비 18억원 등을 새로 반영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비는 370억원(총 770억원), 광주 하계U대회 지원비 70억원(총액 110억원), 광주 첨단문화클러스터 조성비 2억원(총 4억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복지위도 국립소록도병원 병사 개보수 비용 38억원을 증액해 76억 2700만원으로 반영했으며, 같은 병원의 한센병·노인병 의학연구에 2억3250

만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 2012년 여수박람회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랑인 및 노숙인의 보호에 필요한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17억5600만원을 증액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한 사업도 적지 않다. 문방위는 광주 CT연구원(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지원비 42억원 등을 반영하지 않았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정경으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광주교도소 진입도로 개설비 300억원, 빛그린산단 진입로 11억원 등이 누락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립심혈관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내년엔 100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절실하지만 야당 정부 예산에서 제외된 상태다.

특히 전주~광양 고속도로 추가구구 432억원과 목포~광양 고속도로 추가구구 2785억원 등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사회간접시설 예산을 반영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여수엑스포 SOC 예산 확보는 시기적으로 사실상 내년이 마지막 기회지만 4대강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토해양위 소속 예산이라서 반영이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조지 워싱턴호 전투지휘소 29일 서해상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조지 워싱턴 호모내 전투지휘소에서 승조원들이 한반도 작전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사진공통취재단>

“국민 생명·재산 못지킨 책임 통감”

李대통령 대국민담화...한·미, 이틀째 연합훈련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앞으로 북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담화문’ 발표를 통해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 키운다는 것을 국민은 분명히 알게 됐다”면서 “협박에 못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 정권을 옹호해온 사람들도 이제 북의 진면모

를 깨닫게 됐을 것”이라며 “저는 국민과 함께 결단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하겠다”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제안을 겨냥한 듯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지적한 뒤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무고한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

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한·미 양국이 29일 서해상에서 실시한 이틀째 연합훈련에서는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탑재된 각종 함재기가 총출동한 가운데 다양한 고강도 전술훈련으로 진행됐다.

또한 중국이 6자회담 재개 카드를 꺼낸 것을 계기로 북한의 무력도발 사건 해법을 모색하는 한국-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 간의 외교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감사원, F1 대회 감사 착수

감사원의 F1(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감사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F1 대회를 비롯한 전국 국제행사에 대한 감사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수천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F1 대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오후 4명의 감사단을 파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대회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갖은 의혹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전남도와 함께 대회운영법인인 KAVO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국·도비 등 수천억원을 쏟아부었고 경주장 건설이 3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대회가 총체적으로 부

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주목, 경주장 건설 지연 사유 및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KAVO와 전남도가 각각 다르게 파악하고 있는 추가 공사비 규모에 대해서도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알림

전세계 3천만 관객의 돌풍!
MAMMA MIA!
ABBA 음악으로 만든 최고의 뮤지컬

12월 3일(금)~5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전 세계에서 3천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명품 뮤지컬 ‘맘마미아’가 광주를 찾아 옵니다.
‘Dancing Queen’, ‘I have a dream’ 등 인기 그룹 아바의 히트곡 22곡을 엮은 뮤지컬 ‘맘마미아’는 2004년 한국에서 초연된 후 지금까지 1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 특히 40~50대 중년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며 새로운 공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공연에는 한국 최고의 뮤지컬 스타 최정원·남경주를 비롯해, 2006년 초연 때부터 무대에 올랐던 이경미가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 시 : 2010년 12월 3일(금)~5일(일) 총 5회 공연
- 장 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KBC KCTV 광주방송
- 주 관 : **공영마루**
- 공연문의 : 062-220-0541, 1588-0766
- 인터넷예매 : 티켓마루(www.ticketmaru.co.kr), 인터파크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탄, 추어탕, 육개장
•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별약관
• 객실 : 전 객실 50% 할인
• 웨딩홀 :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 풀인치 :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침선연 · 각종 세미나 (대 · 중 · 소 회차장 판매)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연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알림

즐기세요, 현대미술의 세계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 연중 강좌 제11탄
배우우 사진작가 ‘빛으로 그린 그림’

※ 선착순 100명·무료

12월 3일(금) 오후 3시 광주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光州日報社

http://www.kwater.or.kr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영산강 살리기! 우리의 미래입니다

수자원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생태계복원,
지역관광, 문화활성화에 이르기까지 -
희망의 강이 우리 생활 속으로 흐릅니다.

K water

죽음의 강이었던 태화강 ▶ ◀ 2002년 1급수로 되살아난 태화강